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13.(목) 12:00
(지 면) 2026. 8. 14.(금) 조간

국가기록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NLB)와 기록관리 최초 업무협약 체결

- 8월 14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협약 체결, 양국 간 기록관리 교류협력 본격화
- 싱가포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에 큰 관심
- 동남아 국가와 세 번째 협약, 'K-기록관리' 아시아 전역 확산 박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8월 14일(금)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이하 NLB, 위원장 멜리사 탐)와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용철 국가기록원장과 멜리사 탐(Melissa Tam)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서명식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기록관리 분야에서 맺어지는 최초의 공식 협약이다. 양국의 중요 기록정보를 관리하는 중추 기관이 상호협력을 선언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기록관리 국가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속적인 교류와 다각적 국제 협력이 빚어낸 성과

양 기관은 지난 2025년부터 다양한 국제 기록관리 행사에서 교류를 이어오며 서로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특히 올해 3월 싱가포르 국가기록원장 등 NLB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의 시청각 시설 등 첨단 보존시설을 둘러본 뒤, 한국의 디지털 기록의 보존·관리 역량에 관심을 표한 것이 이번 협약 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편, NLB는 ‘싱가포르 디지털 발전 및 정보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소속으로, 국가 중요 기록물의 수집·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에서 협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역사·문화 기록 공유부터 디지털 보존과 AI 활용까지, 전방위적 협력 추진

이번 협약에는 ▲양국의 역사·문화·유산 관련 기록정보와 디지털 기록물 공유 ▲디지털 보존, 기록관 운영, 보존처리 기술 및 인공지능(AI) 활용 등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교류 ▲문화 전시·소개를 통한 양 기관의 소장 기록물 및 기록관리 활동 홍보 협력 ▲기록관리 분야의 기술 및 우수 사례 교류를 비롯한 공동 연구와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한국형(K)-기록관리’의 아시아 확산 박차

국가기록원은 2025년부터 추진한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기록관리’를 표방하며 ‘한국형(K)-기록관리’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 위상을 높여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기록관리 표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강력한 원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책임자	과장	김정은 (042-481-6247)
		담당자	연구관	김성겸 (042-481-6311)

